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창세기 2:7-9;3:1-7 | 제2독서 | 로마서 5:12-19 | 복음 | 마테오 4:1-11

◎말씀 “신앙생활 재정립을 위한 사순시기”

사순시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40일은 성서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상징하며, 부활을 향한 수난의 여정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3년 전 사순 메시지를 통해 사순시기 실천하는 단식, 자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단식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선,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한 기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재정립한다면 신앙생활이 은총임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복음은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유혹은 제1독서가 전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속여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어기게 하여 모세조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므로써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도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받는 유혹과 다르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긴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유혹이라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기심을 부추기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소박한 믿음으로 이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영광의 길을 걷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꿈으로써 만나를 내려서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주었던 모세 같은 메시아가 되라고 하였고,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보호해주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봉사를 받는 메시아가 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루는 지배자 메시아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기심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사탄의 주장은 현대 사조(現代思潮)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사실이 현대인에게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오시더라도 십자가에 못박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못박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을 죽이는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르지만, 주님의 수난과 일치하는 고통은 참 기쁨을 샘솟게 하여 영혼을 정화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2월28일(화)	사순 제1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453.00
			교무금	\$ 980.00
3월1일(수)	사순 제1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물방	\$ 174.00
			자선비	\$ 10.00
3월2일(목)	사순 제1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 20.00
			기타	\$ 20.00
3월3일(금)	사순 제1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3월4일(토)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2,657.00
3월5일(일)	사순 제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6명 성인: 193명
교무금 봉헌자	김형진(1-6)박용호(2-3)권영일.임상일.이승렬(1-2)이대원(2)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의 기원,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의 시작은 초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세기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힌 자리를 방문하곤 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얻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 처럼 정형화된 처(處)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이 일어난 장소를 따라 행렬하던 전통은 오늘날 십자가의 길 기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용어는 중세시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보나벤투라 등의 성인들도 이 십자가의 길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 성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방문하는 순례의 여정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로만 여기지 않았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 자체가 신자들의 신심을 수련하는 기도로 봤고, 많은 신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머문 곳, 14처

오늘날 우리는 14처를 만들어 성당에 설치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곤 한다. 각 처(處)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며 이동하던 중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장소들이다. 이렇게 처를 만들어 기도하는 관습은 12세기경부터 시작된 풍습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순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순례길은 때로 이교도들에 의해 막혀있는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순례를 갈망하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도시에도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본 딴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처다. 각 처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십자가의 길 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이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원들이었다. 작은형제회 회원들은 수도원이나 경당에 처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길 기도가 널리 퍼질 수 있었다. 1688년부터는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 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를 공포한 복자 인노첸시오 11세 교황은 이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십자가의 길이 교회 내에 도입됐지만, 처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클레멘스 12세 교황은 1731년 십자가의 길 14처를 승인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십자가의 길을 마련했다. 이후 19세기경에는 14처와 십자가의 길 기도가 전 세계로 퍼져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로 바쳐져왔다.

신앙선조들의 십자가의 길, 성로선공

십자가의 길은 우리 신앙선조들이 열심히 바치던 기도 중 하나다. 신앙선조들은 십자가의 길을 성로선공(聖路善功)이라고 불렀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만 생각한다면 ‘성로(聖路)’라는 말로도 충분하다. 또 굳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도를 뜻하는 ‘신공(神功)’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앙선조들은 굳이 십자가의 길 기도에만큼은 ‘선공(善功)’이란 말을 사용했다. 선공은 선행이나 선업(善業), 신앙을 바탕으로 한 존경할 만한 행동이나 찬양할 만한 업적을 의미하는 말이다. 신앙선조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그저 입으로 외는 기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 죽음을 묵상하며 그 길에 동행하는 ‘실천’으로 여겼던 것이다.

신앙선조들이 성로선공을 대했던 마음은 신앙선조들이 사용하던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천주성교공과」는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함으로 마음이 감동하여 허물을 고쳐 자기를 새롭게 하며, 혹 의덕을 보존케 한다”면서 십자가의 길이 신자들의 신심수양을 위한 실천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무지 이 선공(십자가의 길)이 가장 천주의 뜻에 흡합한(흡족하고 알맞은) 바”라면서 “연령(煉靈)을 구하기에 크게 돕는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선행도 언급하고 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마이클 메이오 영혼	최선옥 제노베파	생	크리스티와 부라이스 영육건강	구비아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가족	생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김경숙 로마나	생		
연	김숙연 타르실라 영혼	이베드로.벨라렛다	생		
연	임학택 요한 영혼	임안드레아.실비아	생		
연	정옥순 프란체스카 영혼	김헬레나	생		
연	구엘리사벳, 구베드로 영혼	구준모요한,구비아	생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매주 금요일: 저녁7시30분 (시작)
 주도: 레지오 (게시판 참조) 장소: 성당
 저녁미사: 저녁8시(십자가길 마침 직후)
매주 주일 : 교중미사 직후 (시작)
 주도: 울뜨레아 (전신자 자발적 참여)
 장소: 야외 14처 (우천시는 성당)

2.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미사 봉헌 때 중앙으로 나오셔서 재를 받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3. 본당 사목회의

일시: 26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부활 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미사 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과 함께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5. 사순절저금통 (부활절에 봉헌)

사순시기 동안 불우한 이웃과 나눔을 위해 단식 금육.희생의 뉘를 담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3월4일(토) 오전10시30분.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습니다.

7.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3월5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3월 구역미사 (1-1구역)

일시: 3월10일(금) 저녁7시30분
 장소: 김병국 울리오 박경하 율리아 (자택)
 당일 십자가의 길은 성당 혹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9. 모임 및 활동

6구역모임 : 26일(주일) 오후4시 김평옥 모니카맥
 울뜨레아 : 26일(주일) 오후1시 구사제관(성가대)
 사회복지부: 3월4일(토) 홀리스 식재료준비/모임
 3월5일(주일) 오전8시 홀리스 음식봉사
 10구역모임: 3월4일(토) 오후5시 임옥인 데레사맥

10. ACA (Annual Catholic Appeal) 설명회

일시: 26일(주일) 오전 9시. 11시 미사중
 약정서 제출: 3월19일(일)까지 (게시판:참조)
 제출방법: 교구에 직접 또는 사무실 경우
 본당혜택: 본당신자 기부금액의 25% 환급받음
 (2022년 환급액: \$2,277.-)
 안내/설명: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11. 감사합니다

리노공소후원: \$500 (익명)

◎ 경북 영양 고춧가루 판매(공소부): \$45/1kg

<< 주일학교 >>

2023 봄학기 주일학교

수업시간: 주일 오전 10시~11시
 주일학교 교감: 박희현 세실리아 (916 850 5320)
 주일학교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부모 회의

일시: 26일(주일) 오전10시30분. 엘리사벳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 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례봉사	사순 제1주일 (2/26)	사순 제2주일 (3/5)	사순 제3주일 (3/12)	사순 제4주일 (3/19)
미사해설	김선영 / 김은영	박문교 / 김선영	이주연 / 최금주	김선식 / 김은영
복사	정우영 임가빈 / 장현철	허은우 허은주/윤지현	박예린 박예진 / 이대원	정준영 곽아인 / 김병수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전주곰탕 & BBQ

95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골롬바)
916-382-9699 (C)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 916-728-8585
KP market, #411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